현의송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23〉 연재를 마치며

가공·유통·서비스를 모두 업그레이드 하라

세상이 숨 가쁘게 달라지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3개월이면 세상이 바뀔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 환경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UR, WTO, DDA,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상징하는 용어도 정신없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농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개방화의 흐름은 거역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아픔과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남이 먼저 변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타인과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다.

농업과 농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농촌 관련 공직자는 물론이고 농업인도 서둘러 변해야 한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처럼 생산에만 한정된 농업은 미래가 없다. 국내 총 농산물의 생산액은 약 20조원 이다. 그러나 전 국민이 식생활을 위해서 지불한 금액은 90조원이 된다. 생산에 한정한 농업은 현재 20조의 시장이고 이는 계속 감소 할 것이다. 그러나 농민이 유통 가공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90조원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의 범주를 농산물의 유통, 가공과 함께 서비스업까지 지향해야 한다. 이것을 '농업의 6차산업화'라고 한다.

2005년 7월 농협과 농민신문사에서의 40년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이제까지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2모작 인생을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카메라를 들고 일본으로 떠났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일본의 농산촌을 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잘 사는 60여 곳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UR협상 이전에 일본의 농업과 농촌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필자로서는, 협상 타결 이후 일본 농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큰 관심사항이었다.

그동안 필자는 일본의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첫째, 만나본 대부분의 농민이 시장경제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FTA 논의를 반대하고, 농정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었다. 정부도 농경지를 규모화하고 효율화 하기위해 대담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은 4ha, 법인은 20ha로 규모화 하고 이들 경영체 40만개가 일본 전국토의 영농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안정되도록 일본형 직접지불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가 활성화된 곳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었다. 공직자들이 지역 내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활력화 시키고 자기의 직장도 유지할 것인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 "농업 영역 확대하고 시장경제 흐름 좇아야 재배과정 투명성 중요"

셋째, 농업의 6차산업화다. 그들은 농업이 생산으로 끝나는 1차 산업에 머물러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1차×2차×3차 산업=6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이것은 기초인 농업이 0(제로)이면 그 결과치도 역시 0이 된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부터의 농업은 6차 산업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가공, 유통, 농가식당 운영 등에 참여하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부녀회에 의한 농가식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현(縣)정부가 나서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붐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많았다.

넷째, 농산물의 투명성이다. 우수농산물로 팔리는 농산물의 80% 이상이 재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이력서를 직매장의 책꽂이에 꽂아 놓은 곳도 있고 전산화해서 농산물에 표기된 바코드를 읽어서 컴퓨터로 신속하게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었다. 한일 FTA 가 맺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을 요구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농경지의 땅심 높이기를 열심히 한다는 점이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득이 높은 농가나 농장은 공통적으로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토작(土作), 인작(人作), 촌작(村作)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땅심 높이기와 인재 양성이 지역 활성화의 키포인트임을 집약한 표현이다.

여섯 번째로 농업농촌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해 농림부만 나서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행정부서 모두가 나서서 도시 농촌교류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혜를 짜낸다.

도시 소비자들도 수입쌀이 저렴해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80%에 이른다.

16세기 토마스모어가 그린 유토피아는 농촌이었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는 것은 의무이고 농촌에서 사는 것은 일정기간을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한테 주어지는 특권인 셈이다. 그 만큼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가 좋은 유토피아라는 의미이다. 우리 한국의 농촌도 활력을 되찾고 유토피아로 인정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한다. 〈끝〉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광주일보 일본통신원 eshyun21@naver.com

일본 농업의 최대 강점은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협력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카라리 농협 직매장 내부.

농한기 새로운 농사법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농업관계자들.

지역농협이 꾸려가는 직매장은 항상 고객들로 붐빈다.

도·농 교류활동에 참여한 도시 학생들의 모내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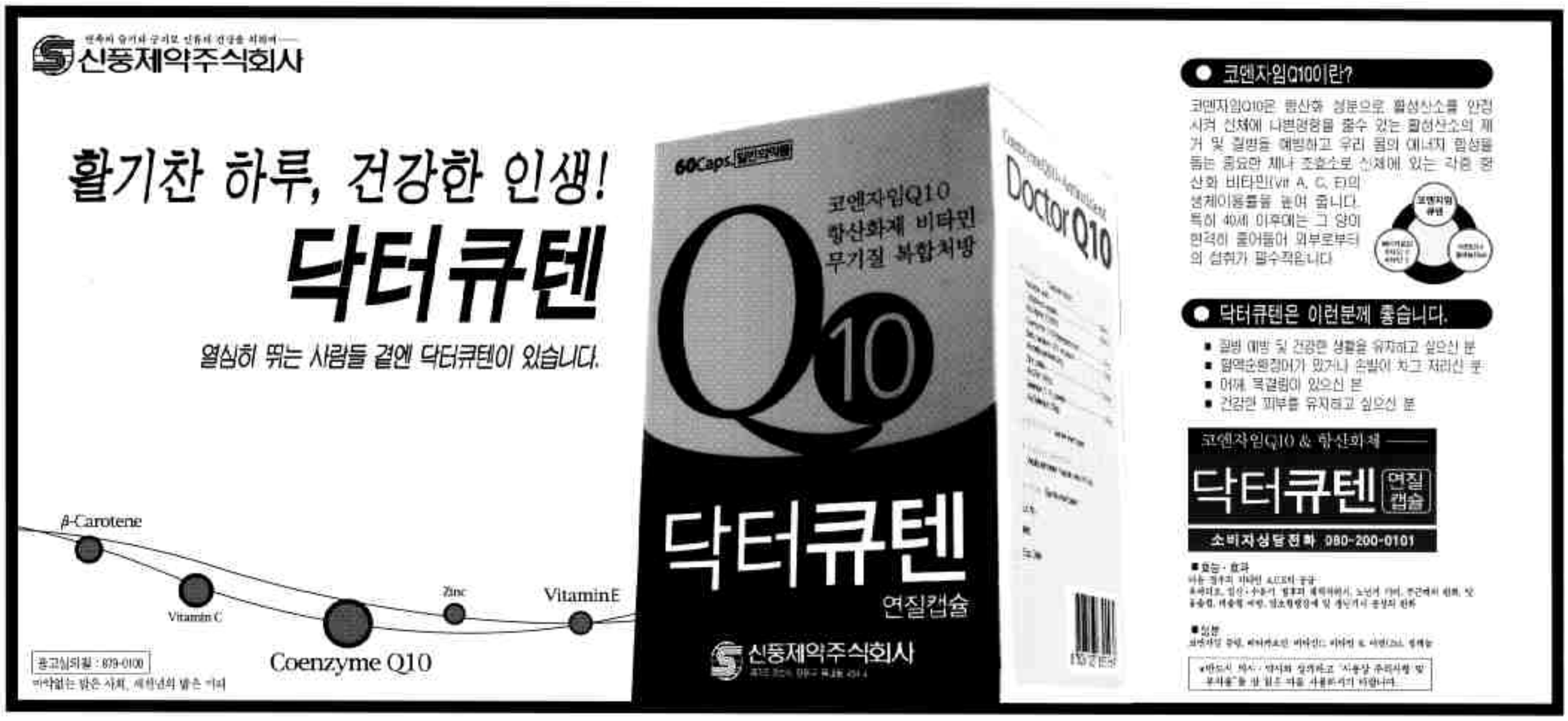
어린 학생들도 각종 농촌관련 활동으로 농업과 가까워진다.

'농촌 살리기' 대안 제시 지자체 곳곳 적극 시책반영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 연초부터 연재된 '현의송의 일본농업 따라잡기' 시리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좋은 대안으로 제시됐다.

시리즈를 통해 소개된 일본의 과감한 쌀 농업 개혁 정책과 농민들의 노력, 지역 특산물 발굴과 판로 모색을 위한 농민과 농협, 지역공동체의 노력 등은 교훈으로 삼기에 충분했다.

특히 유기농업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전략으로 떠오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훌륭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본 연재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호응도 높았다. 영암, 강진 군 등에서는 전체기사 내용을 모아 관련농업 시책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시리즈를 집필해 온 현의송씨는 게재된 기사를 바탕으로 '21신사유람단의 밥상경제학'(이가서)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이 책은 12일부터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